

2022 공인노무사 합격 후기

합격수기 제목: 31기 합격수기

수험기간:

1. 합격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31기에 합격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인사팀에서 일하며 알게 된 직업입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쟁의행위, 단체교섭 등의 모습을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고, 노무사들과 업무를 함께 하는 노무담당자들을 옆에서 보며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써,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기에 법률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하고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때 사적 조정 업무도 담당합니다. 특히 전문직이라는 부분은 회사원에게 있어 상당한 메리트가 보였습니다. 조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토대로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보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수험기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 후 1년 전업으로 공부하였습니다. 1년간 공부하며 느낀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민법을 들을 때는 저 자신의 지능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이렇게 공부해서 되기는 하는 것인가 라는 불안이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인노무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이 길게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멘탈을 잡은 점이 합격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분들을 응원합니다.

과목별 공부법(수강 강의 및 교수님 후기, 시간 관리 방법 등):

1. 노동법 (이윤탁 선생님, 61.5) 현재 이윤탁 선생님은 강의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후기를

쓰고 싶은 만큼 상당히 만족한 강의였습니다. 온라인 첨삭을 하실 때 첨삭의 퀄리티 하락을 걱정하시고 소수로만 받으시면서 꼼꼼한 첨삭을 운영해주신 덕분에 0, 1기에도 답안 작성에 자신이 생겼고, 강의 중간중간 동기부여 말씀을 해주셔서 힘든 수업생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2,3기에 노동법은 쟁점을 리스트업하고 머리속으로 답안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며 공부하여서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2. 인사노무관리 (최중락 선생님, 59.8) 최중락 선생님은 명실상부 1타이시고, 책이 좋다는 후기들이 많아 고민 없이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인사담당자로 근무하였기에 책의 내용이 보다 잘 읽혔고, 선생님의 깊은 전공지식들이 곁들여져 좋은 시너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다는 평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과목이 법학과목처럼 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3. 행정쟁송법 (정선균 선생님, 58.5) 정선균 선생님은 이미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행쟁의 경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답안의 깊이 부분에서 분명 차이가 나는 과목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범답안을 보며 교수님의 논리흐름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고, 단권화 교재를 기준으로 빠르게 회독을 돌리며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계하며 공부하였습니다.

4. 노동경제학 (정용수 선생님, 60.7) 스카이프 첨삭이 매우 세세하시고 꼼꼼하셔서 초반에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2, 3기 실강을 들으며 대면첨삭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 3기 강의는 인강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제 답안형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경 또한 인사만큼이나 답안의 자유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개인성향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사이트, 서비스, 콘텐츠 활용 팁:

1. 프리패스의 장점은 모든 정규강의를 배속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학원에 비해 분명 차별화되는 지점이고, 인강을 들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생동차의 경우 2차와 1차를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데, 노단기의 1차 강사진분들도 충분히 훌륭하셨고, 별도의 수강신청 없이 강의를 듣는 부분이 편리하였습니다. 배속제한이 없는 무제한 재생이라는 부분을 개개인마다 어떻게 살리는지에 따라 프리패스의 효용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식사시간이나 이동시간에는 인사노무관리의 잘 이해가 안되거나 키워드를 낮익게 하고 싶은 부분을 계속 재생하면서 다녔습니다. 식사시간이 사실 공부할 때 상당히 아깝다고 느껴지는데 배속제한이 없는 부분으로 식사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고,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 3기에는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의 담당자님들 또한 상당히 친절하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시스템 등에 대해 질문을 할 때 친절히 답해주시는 것들이 평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수험생활 중이었기에 그런 친절 하나하나가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단기 인터넷 페이지 그리고 학원 담당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교수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1. 수험생분들께 노단기 프리패스를 구매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본인에게 잘 맞는 과목별 강사님들이 다른 학원으로 나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무제한 반복 및 평생 연장이 된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께는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림에 있는 학원들에서 강사님들의 역량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는가가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프리패스를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급이라는 부분은 생동차를 도전하시는 분들께 하나의 커다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환급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강하여 공부하는데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험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였기에 고통스럽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자랑을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수험생분들께서 공인노무사 시험을 시작할 때 품었던 마음가짐과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자주 그려보면 중간중간 찾아오는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방법을 위한 공부는 하여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 하에 불안해서 현재의 공부방법의 효율성을 검토하지 않고 관성에 의해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3기 내내에도 공부방법을 계속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3기에는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올 수 밖에

없기에 회독을 거듭하며 생기는 매너리즘이 상당합니다. 그러한 매너리즘을 이겨내기 위해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읽으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2. 교수님들께 프리패스를 통해 수강을 했던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은 강의였고, 그 덕에 흔들림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